

괴기에서 웃음으로

박성혜**

도시 전설 <빨간 마스크>의 변용 사례와 그 의미*

초록 본고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 전설인 <빨간 마스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변형되어 향유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밝히는 글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향유되는 <[짤툰 오리지널] 빨간마스크>와 단편 영화 <빨간 마스크 KF94>를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빨간 마스크>를 어떻게 변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빨간 마스크>는 빨간색 마스크를 쓰고 밤에 길거리에 홀로 있는 아이를 해치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주된 향유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괴담으로 향유되었다. 반면 <[짤툰 오리지널] 빨간마스크>와 <빨간 마스크 KF94>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다시 나타난 여성이 사람들과 소통에 실패하고, 마스크의 기능 변화를 알지 못하고, 위력이 약화되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해치는 데 실패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웃음이 유발되는데, 이 웃음은 과거 어렸을 때 두려워했던 대상이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는 해방감을 제공하며,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야기하는 답답함과 긴장감으로부터 일시적인 해소를 제공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의 경직성과 마스크로 인한 불통을 비판하며,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투영한다.

이와 같은 주제와 미학의 변화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적이었다. 일본의 요괴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괴담 <빨간 마스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승 환경, 전승 주체, 전승 방식 등을 바꿔 한국의 전통적인 이야기의 자장 안으로 흡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캐릭터, 서사의 구조와 주제, 이야기 향유의 기능 등이 변형되었다.

주제어 빨간 마스크, 도시전설, 괴담, 바이러스,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괴기, 그로테스크, 웃음, 대중 서사, 유튜브, 영화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시립대학교 의사소통교실 강의전담 객원교수

1. 서론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 전설인 <빨간 마스크>는 일본에서 형성되어 한국에 유입된 괴담 중 하나이다. 한국의 <빨간 마스크>는 일본에서 건너온 <입 찢어진 여자(口裂け女, 구치사케 온나)>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빨간마스크>의 파생형으로 다른 색깔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물들의 서사가 생성되기도 하였으며, 구전, 출판물, 영상과 같은 매체를 통해 <빨간 마스크>가 다기하게 전승되었다.

2004년 초등학교생들을 중심으로 <빨간 마스크>가 널리 향유된 직후 <빨간 마스크> 연구가 제출되었다. 김종대¹와 노성환²은 <입 찢어진 여자>와 비교를 통해 <빨간 마스크>의 유래, 그 내용과 특징, 당시 전승의 양상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입 찢어진 여자>는 일본에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유행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전승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³ 그러나 한국의 <빨간 마스크>는 1983년에 등장하여 1994년과 2004년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방구 괴담집이나 만화책과 같은 상업적 출판물의 출간과 관련이 있었다.⁴ 2004년 이후에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괴담 출판물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빨간 마스크>는 꾸준히 언급되었으며, 플래시게임이나 영화 등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빨간 마스크>

-
- 1 김종대(2005),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pp. 95-121.
 - 2 노성환(2007), 「바다를 건너 일본의 요괴: 빨간 마스크의 도시괴담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6, 대한일어일문학회, pp. 353-377; 노성환(2020), 「홍콩할매귀신과 일본의 요괴」, 『일어일문학』 87, 대한일어일문학회, pp. 285-306.
 - 3 노성환(2007), p. 376.
 - 4 김종대(2005), p. 116; 노성환(2007), p. 277.

의 전승 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했던 경험은 〈빨간 마스크〉의 서사를 비틀어 이를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본고는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빨간 마스크〉의 전승 사례를 확인하고, 변화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한창 코로나19의 확산이 진행되던 2020년과 2021년에 만들어진 영상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논의의 대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크게 인기를 끈 〈짤툰 오리지널〉 빨간마스크와 김민하 감독의 단편 영화 〈빨간 마스크 KF94〉이다. 이 두 영상은 코로나 팬데믹을 배경으로 〈빨간 마스크〉 서사를 패러디한 것인데, 서사의 전개와 주제 의식이 유사하고 영상이라는 형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의 〈빨간 마스크〉의 새로운 전승 양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중들의 바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빨간 마스크〉 괴담의 불안과 공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존에 한국에서 전승되었던 〈빨간 마스크〉의 서사 단락을 확인해보자.

〈빨간 마스크〉의 서사 단락⁵

〈단락 1〉 밤중에 혼자 길을 가는 아이에게 젊고 키가 큰 여성이 코트를 입고 빨간 마스크를 하고 흥기를 가지고 나타난다.

〈단락 2〉 이 여성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나 예뻐?” 하고 묻는다.

5 노성환(2007), p. 364를 서사의 전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단락 3-1〉 아이가 여성에게 예쁘다고 대답하면, 여성은 마스크를 벗으며 “이래도 예뻐?” 하고 찢어진 자신의 입을 보여주며 아이의 혈액형에 따라 입을 찢는다.

〈단락 3-2〉 아이가 여성에게 못생겼다고 대답하면, 여성은 아이를 흉기로 죽인다.

〈단락 3-3〉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치면, 여성은 무서운 속도로 따라와 아이를 해친다.

〈단락 3-4〉 아이가 여성이 싫어하는 것을 말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주면 여성이 아이를 해치지 않고 사라진다.

위 서사 단락은 〈빨간 마스크〉의 다양한 각편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아이의 반응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는 결말은 〈빨간 마스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각편으로 향유된 사실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 〈빨간 마스크〉가 괴담, 즉 괴기스러운 서사로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먼저 〈빨간 마스크〉의 서사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서사가 불러일으키는 괴기의 정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괴기는 공포·스릴의 감각과 추, 어둠, 기괴한 형상의 영역을 범주화하는 어휘로 범죄 스텔러, 추리, 공포 등의 서사를 가리키는 대중 서사 양식으로 불렸던 것을 지칭한다.⁶

6 김지영(2019), 「괴기, 불균등한 근대への 저항과 공포의 변증법」, 『우리문학연구』 64집, 우리문학회, p. 414. 본래 괴기는 전근대 문학에서 기괴와 함께 ‘드물고 특이하여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초 그로테스크가 일본어 ‘괴기’를 거쳐 한국어 ‘괴기’로 번역되어 사용되면서, 괴기는 과거의 의미에 더해 잔혹성, 섬뜩하고 마술적인 분위기 등 공포를 환기하는 정서들을 중점적으로 표상하면서, 추와 악을 표상하는 음산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였다[김지영(2010), 「기괴」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개념과 소통』 5호, 한림과학원, pp. 39-78]. 그리고 괴기의 의미망은 196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본고는 〈빨간 마스크〉가 처음에 일본에서 형성되어 한국으로 넘어온 ‘도시 전설’이라는 장르상의 특성과 도시 전설에 대한 다양한 지칭어 중 하나로 ‘괴담’ 등이 사용

〈빨간 마스크〉에서 밤에 홀로 길을 가는 아이는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흥기를 든 여성을 만나게 된다. 여성은 아이에게 자신이 예쁘냐고 물어보고, 아이는 자신의 답변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한다. 이때 〈빨간 마스크〉의 다양한 변이형이 출판물, 즉 어른들의 상업적인 의도⁷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안전과 직결된 불안과 공포는 〈빨간 마스크〉가 괴담으로 향유될 수 있었던 특징을 잘 보여준다.⁸

먼저 〈단락 1〉에서 아이가 밤에, 집이 아닌 길거리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낯선 사람을 마주치는 것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서 서사 전개의 공간이 집이 아닌 길거리인 것, 대면한 사람이 낯선 이로 설정된 것은 아이가 이중으로 낯선 상황에 마주한 것을 보여준다.

이때 낯선 상황을 마주한 아이의 불안감은 〈단락 2〉에서 공포로 증폭된다. 여성이 두르고 있는 코트와 마스크는 아이가 여성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일상적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얼굴은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여성은 마스크와 코트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있다. 즉, 아이는 직관적으로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흥기를 든 사람을 마주한 것이다.

여성은 아이에게 자신이 예쁘냐고 물어본다. 아이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여성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다. 불분명한 것과 불확실한 것에 대해 무방비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은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⁹ 모르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만 하

된다든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빨간 마스크〉가 유발하는 정서를 표현하기에 ‘그로테스크’보다는 ‘괴기’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7 김중대(2005), p. 116; 노성환(2007), p. 277.

8 괴담은 불가해한 것, 불명료한 것 등에서 느끼는 사회적 감정이 상호 소통되는 구비전승의 한 형태이며, 이때 야기되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사회적 감정이다[최원오(2008), 「구비전승의 현재와 미래」, 『한국문화인류학』 41(2), 한국문화인류학회, p. 207].

9 지그문트 바우만(2009),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서울: 산책자, p. 12.

는 상황은 아이의 공포를 극대화시킨다. 이는 <장산범 이야기>에서 장산범이 이야기하는 “이질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시각적 정보의 규정불가능성이 과생시키는 공포”¹⁰와도 상통한다.

여기에서 아이는 자신의 무방비 상태를 굳이 노출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공포에 직면한 생물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을 크게 도망치거나 대면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¹¹ 아이는 도망치거나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락 3-3>은 아이가 이 상황에서 도망쳤을 때 뒤쫓아온 여성이 아이를 해치는 결말을 제시한다. 아이는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

따라서 아이의 안전은 여성에게 어떤 답변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락 3-1>과 <단락 3-2>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긍정 혹은 부정의 답변을 했을 때, 입이 찢어지게 되는 결말을 보여준다. 아이는 안전하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락 3-4>와 같이 여성이 싫어하는 단어인 포마드를 외치거나, 호박엿, 계피맛 사탕과 같이 여성이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말은 나머지 결말에 비해 전승력이 약했으며, <단락 3-1>, <단락 3-2>, <단락 3-3>의 결말이 주로 전승되었다.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아이는 다칠 수밖에 없다는 서사가 주로 전승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 아이는 이에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그 답변은 기괴한 형체나 위력을 가진 여성을 마주하게 만들고, 여성은 아이의 신체를 손상시키고야 만다. 이는 <빨간마스크>가 아이의 입장에서 느낄 기괴함과 불안, 공포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킨 서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서사 안에서 구조화되는 공포감은 향유의 맥락에서 더욱 강화되었을

10 이소윤(2018), 「뉴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도시괴담 장산범 연구」, 『구비문학연구』 48, 한국구비문학학회, p. 236. 장산범 이야기는 부산에서 처음 전파되었는데, 빨간 마스크 역시 포항 등지를 중심으로 처음 전파되었다고 한다.

11 지그문트 바우만(2009), p. 11.

것으로 보인다. 이 서사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향유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빨간 마스크>는 학생들에게 그동안 주변의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경계를 상기시킨다. 어린 학생들은 밤에 집 밖을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듣고 자랐을 것이다. 그런데 밤에 집 밖을 혼자 나갔던 아이가 결국 낯선 사람을 만나서 다치게 된다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설명해 준다.¹² 이와 같은 교훈은 <빨간 마스크>의 전승력을 강화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¹³ 이처럼 <빨간 마스크>가 장기간 괴담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서사의 구조적 특성과 향유의 맥락이 있었다.

3. <빨간 마스크>의 변용 사례 분석

3.1. 유튜브 채널 <짤툰>의 <빨간 마스크>에 드러난 여성의 실패

<빨간 마스크>가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변용된 사례로 유튜브의 <짤툰> 채널에 업로드된 <빨간 마스크> 편을 들 수 있다. <짤툰> 채널은 광고대행사인 빅픽처팀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의 목적은 “이 만화는 무료로 웃겨줍니다!”라는 채널의 설명란에서 잘 드러난다. 2024년 9월 현재 2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에 업로드된 <[짤툰 오리지널] 빨간마스크(이하 <짤툰>)>¹⁴는 2020년 9월 27일에 업로드되어

12 일본에서 <입 찢어진 여자>의 유래 중 하나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 아이들을 밤늦게 까지 자습소에 보낼 수 없는 어른들이 다른 집 자녀들까지 자습소에 다니지 못하도록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 위해 이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김중대(2005), p. 107].

13 Jan Harold Brunvand (1981), *The Vanishing Hitchhiker: American Urban Legends and Their Meaning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p. 10-11.

14 짤툰(2020. 9. 27.), 「[짤툰 오리지널] 빨간마스크」, 짤툰, <https://www.youtube.com/>

2024년 9월 기준 361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튜브에서 ‘빨간 마스크’로 검색했을 때 가장 높은 조회수로, 이 영상이 대중들에게 널리 향유된 사실을 보여준다.

3분의 짧은 애니메이션의 구성을 살펴보자. <짤툰>은 기존에 알려진 <빨간 마스크> 서사를 소개한 후, 여성의 실패담을 연이어 제시한다. 이어서 여성의 정체를 알아본 육상 코치를 만나 이 여성이 대한민국 육상 대표로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다는 후일담으로 마무리된다. <짤툰>은 여성의 실패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짤툰>의 서사 단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세 개의 에피소드는 모두 여성이 학생들을 위협하는 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 괴담과 비교하였을 때, 학생들을 마주쳤을 때 여성이 보여주는 행위는 동일하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괴담과 달라졌다. 이를 내가 예쁘냐고 묻는 여성의 발화 전달 여부와 학생들의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에피소드 1에서 여학생은 자신이 예쁘냐는 여성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을 한다. 일차적으로 여성과 여학생 사이에 의사소통은 이루어졌다. 다만 이는 여성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여학생의 입을 찢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여성이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 괴담에서 마스크는 여성의 규정 불가능성을 드러내며 여성이 직접 마스크를 벗는 것은 여성의 정체를 상대방에게 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 괴담의 긴장감은 이 장면에서 고조된다.

그러나 에피소드 1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금지된 행동일 뿐이다. 영상이 업로드된 2020년 9월에, 마스크는 정체를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다. 에피소드 1에서 여학생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여성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지금

[표 1] <짤툰>에 형상화된 여성의 실패담

에피소드 1 (33초-53초)	① 밤중에 혼자 길을 걷어가는 여학생에게 젊고 키가 큰 여성이 코트를 입고 낫을 들고 빨간 마스크를 하고 나타난다. ② 여성은 지나가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 ③ 여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④ 여성이 마스크를 벗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려고 하자, 여학생이 코로나19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KF94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화를 내며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한다. ⑤ 여성은 여학생의 반응에 머쓱해하며 약국에 가서 KF94 마스크를 산다.
에피소드 2 (1분 4초-1분 15초)	① KF94 빨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약국에서 나오자마자 밤중에 혼자 길을 걷어가는 남학생 1에게 나타난다. ② 여성은 지나가는 학생에게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 ③ 남학생 1은 미친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④ 여성은 남학생 1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남학생 1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사라져버린다.
에피소드 3 (1분 33초-1분 45초)	① 남학생 1을 놓친 여성은 곧장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남학생 2에게 간다. ② 여성은 지나가는 남학생 2에게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 ③ 남학생 2는 이 질문을 여성의 고백으로 오해하고 만남을 정중히 거절한다. ④ 여성이 남학생 2의 반응에 화를 내자,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여자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요? 지금 이런 시국에 면전에 대고 마스크를 벗으려고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마스크 꼬라지는 또 그게 뭐예요? 적어도 KF94 정도는 껴 줘야 안전하게 비말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피소드 2와 3에서 여성의 발화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다. 에피소드 2에서 남학생 1은 여성이 말을 걸어도 여성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에 여성이 어디 가냐고 묻자 남학생 1은 “엄마가 미친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답할 뿐이다. 남학생 1은 처음부터 여성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은 학생을 쫓아가서 해치려고 하지만, 남학생 1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쏜살같이 가버리고, 여성은 남학생 1이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도 없다.

에피소드 3에서 남학생 2는 자신의 정체를 맞춰 보라는 의도를 가진 “내가 이쁘니?”라는 질문을 고백으로 오해한다. 남학생 2는 “지금 헌팅하시는 건가요?”라고 되물으며, 고백을 정중히 거절한다. 여성은 이에 화를 내는데,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은 여성의 고백이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보낸다. 여성은 이러한 시선 때문에 더욱 남학생을 쫓아갈 수 없다. 이렇듯 자신보다 더 빨리 도망가는 남학생 1로 인해, 자신을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으로 보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여성은 연이은 실패 이후, “휴, 하긴 나도 이제 10년은 더 된 옛날 귀신인데 요즘 애들이 무서워할 리가 없지.”라는 혼잣말을 하고, 여성을 알아본 육상 코치는 여성을 도발하기 위해 ‘퇴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빨간 마스크>와 비교했을 때 이 후일담은 그 위력을 잃어버린 여성의 모습을 짧은 대사를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19에 적절한 행동 양식을 몰라서, 전동스쿠터가 너무 빨라서, “나 예쁘니”라고 묻는 질문에 적절한 대응이 돌아오지 않아서, 여성의 위상은 추락했고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다. 반복되는 여성의 실패와 여성을 마주하고도 다치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은 <빨간 마스크>에서 보여준 여성과 학생들의 힘겨루기가 도리어 <짤툰>에서 전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짤툰>의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일으킨다.

3.2. 단편 영화 <빨간 마스크 KF94>에 드러난 여성의 실패

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빨간 마스크>가 변용된 사례로 2022년에 개봉한 김민하 감독의 코미디 단편 영화 <빨간 마스크 KF94(이하 KF94)>를 들 수 있다. “일본 귀신 ‘빨간 마스크’가 마주한 코로나 팬데믹”¹⁵이라는 영화

15 김민하(2022), ‘빨간마스크 KF94’, 정동진독립영화제 웹사이트, <http://jiff.kr/red-mask->

의 소개 글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2022년 24회 정동진독립영화제에서 영화를 본 관객들이 주는 땡그랑동전상을 수상하였으며, 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도 왓차가 주목한 단편상을 수상하였다.

16분 동안 상영되는 〈KF94〉 역시, 〈빨간 마스크〉의 서사를 소개한 이후 여성의 실패담을 연이어 제시하고, 이 여성이 성형 수술을 통해 예쁜 얼굴을 회복하였다는 후일담으로 마무리된다. 〈KF94〉의 실패담 네 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의 에피소드 역시 모두 여성이 상대를 위협하는 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역시 내가 예쁘냐고 묻는 여성의 발화 전달 여부와 이를 들은 상대의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KF94〉의 경우 모든 에피소드에서 여성과 상대의 불통이 드러난다. 여성은 계속해서 일본어로 “私きれいな” 혹은 “私きれいなよ”라고 묻는다. 종조사 ね, よね와 같은 표현을 통해 여성은 자신이 예쁘냐는 질문에 동의를 구하는 의도를 미묘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어서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에피소드 1에서 여학생은 “네? 아 뭐라는 거야.”라고 반응하거나 에피소드 2에서 경찰들도 “뭐라는 거야? 일본말 하는 것 같은데?”라고 답한다. 그리고 에피소드 3과 4에서 경찰이나 간호사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여성을 쳐다볼 뿐이다. 어떠한 경우든 여성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자. 에피소드 1의 ③에서, 여학생은 여성의 정체가 ‘빨간 마스크’라는 것을 알고 포마드를 세 번 외쳐서 여성을 퇴치하려고 한다. 여성은 이와 상관없이 여학생을 쫓아가지만 여학생은 ⑤와 같이 엄청난 달리기 실력으로 쫓아오는 여성을 따돌리는 데 성공한다. 〈짤튼〉의 에피소드 2와 같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신체적 기능을 보여

[표 2] <KF94>에 형상화된 여성의 실패담

<p>에피소드 1 (4분 32초- 6분 31초)</p>	<p>①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학생에게 젊고 키가 큰 여성이 코트를 입고 빨간 마스크를 하고 가위를 들고 나타난다. ② 여성은 학생에게 다가가서 일본어로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 ③ 여학생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였지만 여성의 외형을 자세히 살펴본 후 포마드를 세 번 외친다. ④ 여성은 자신이 예쁘냐고 물으며 여학생을 덮치려 한다. ⑤ 육상부 선수인 여학생은 자신을 쫓아오는 여성을 결국 따돌린다.</p>
<p>에피소드 2 (6분 32초- 7분 46초)</p>	<p>① 달리다가 지친 여성이 순찰을 도는 경찰들을 만난다. ② 괜찮은지 묻는 경찰에게 여성은 일본어로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 ③ 경찰들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여성이 든 흉기를 보고 깜짝 놀란다. ④ 여성은 자신이 예쁘냐고 물으며 경찰들을 덮치려 한다. ⑤ 경찰들은 테이저건을 쏘서 여성을 제압한다.</p>
<p>에피소드 3 (7분 47초- 10분 57초)</p>	<p>① 여성은 경찰서에 붙잡혀 앉아 있다가 정신이 든다. ② 경찰은 여성을 취조하다가 코로나 의심 환자로 신고를 한다. ③ 여성은 홀로 남은 경찰에게 일본어로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 ④ 경찰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⑤ 여성은 자신이 예쁘냐고 물으며 경찰을 덮치려 했으나, 수갑이 의자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급히 일어나다가 쓰러져 버린다.</p>
<p>에피소드 4 (10분 58초- 12분 33초)</p>	<p>① 여성은 음압 병실에 격리되어 누워 있다가 정신이 든다. ② 괜찮은지 묻는 간호사에게 여성은 일본어로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 ③ 간호사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심하게 여성의 체온을 잰다. ④ 여성은 간호사에게 재차 일본어로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 ⑤ 간호사는 검체 확인을 위해 여성의 마스크를 벗기고 막대로 목구멍을 깊숙이 찌른다. ⑥ 여성은 캐백대며 괴로워한다. ⑦ 간호사는 여성이 쓰고 있던 빨간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바꿔 채운 뒤 음압 병실을 나간다.</p>

주는 것이다.

이어지는 에피소드 2와 3에서 여성의 질문을 받은 상대는 학생이 아니라 경찰이다. ④와 같이 여성은 적절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경찰을 덮치려 하지만, ⑤에서 보듯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져 버린다. 에피소드

3의 ⑤의 경우, 여성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 여성은 경찰을 뺨치지 못하고 의자와 함께 넘어져 버린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수갑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여성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기도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흥기를 들고 달려드는 행위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에피소드 2에서 경찰에게 여성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로 인식되며, 에피소드 3에서 신분 미상의 일본인이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인식될 뿐이다.

에피소드 4에서 여성의 질문을 받은 상대는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간호사이다. 간호사는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공적인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간호사에게 음압 병실에 누워있는 여성은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일 뿐이다. 따라서 ⑤와 같이 간호사는 여성의 검체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기면서 여성의 찢어진 입을 확인하더라도, 즉,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더라도, 이 순간은 <빨간 마스크>와 같은 극적인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짤튼>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여성의 마스크를 벗기는 행위는 여성이 보유한 검체 확인을 위한 과정이 될 뿐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여성의 찢어진 입을 보더라도 무심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할 뿐이다. 간호사는 검체 확인을 위해 여성의 목구멍을 찌른 후, 여성이 쓰고 있던 빨간 마스크는 버리고 하얀 마스크를 채워주며 음압 병실을 나간다.

이처럼 <짤튼>과 <KF94>는 <빨간 마스크> 괴담의 공포의 대상이 2020년에 이르러 실패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빨간 마스크>와 비교했을 때 실패는 대개 여성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다. 여성은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달려들지만, 자신보다 더 빠른 학생들을 만나거나 자신을 제압할 수 있는 경찰이나 간호사 등을 만나면서 결국 <빨간 마스크> 서사를 완성하는 데 실패한다. 괴

담의 주인공으로서 여성의 위력이 약화된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마스크의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주요한 실패의 원인이 된다.

4. 웃음을 통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풍자

웃음은 웃음 대상이 격하되거나 웃음 대상의 행위가 규범에서 벗어날 때 유발된다.¹⁶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과 상대방의 불통, 코로나 팬데믹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이나 마스크의 바뀐 기능을 모르는 여성의 무지, 여성보다 달리기가 빠른 학생들의 모습은 <짤툰>과 <KF94>에서 격하된 여성의 위상을 보여주며, 이는 여성의 실패로 귀결된다.

<짤툰>과 <KF94>에서 학생, 경찰, 간호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마스크 사용법을 알고 있지만 여성은 이를 모른다. <빨간 마스크>에서 여성만 착용한 마스크는 여성의 정체에 내재된 규정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도구였다. 그런데 <짤툰>과 <KF94>에서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규칙이 되었다. 실제로 <짤툰>과 <KF94>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등장인물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의 기능은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여성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마스크를 쓴 모습 그대로 자신만의 규정 불가능성을 드러내며, '나 예쁘냐'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규정해보라고 요구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무지는 여성의 위상을 더욱 낮출 뿐이다.

16 류종영(2005), 『웃음의 미학』, 서울: 유로, p. 458(류종영은 서양의 웃음 이론을 시대별로 정리하면서, 미학적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통용될 만한 것으로 '웃음의 우울 이론'과 '웃음의 대비 혹은 불일치 이론'을 언급하였다. 웃음을 다룬 다양한 이론들이 많지만, 이 장에서는 특정한 웃음 이론을 가져오기보다 논의의 과정에서 작품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논의를 끌어와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빨간 마스크〉와 비교했을 때, 여성은 도망가는 학생을 쫓아갈 수 없다. 학생들은 여성보다 더 빠르거나,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학생들은 여성의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해를 입지 않은 채 안전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방이 경찰, 간호사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도록 공권력을 위임받은 경우, 이들은 도리어 여성에게 해를 가하기도 한다. 여성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쏘거나 수갑으로 여성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간호사는 여성의 마스크를 벗기고 코로나 검체를 채취한다. 이는 〈빨간 마스크〉와 비교했을 때 여성의 정보력이 상대방보다 약화된 것을 보여주고, 이는 해당 맥락에서 여성의 위상이 상대방과 완전히 전도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짚툰〉과 〈KF94〉에서 여성의 실패는 반복된다. 두 영상은 모두 〈빨간 마스크〉의 서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성은 2020년에도 〈빨간 마스크〉에 형상화된 행위를 고수한다. 여성은 자신의 위협이 실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행동과 질문을 하며 실패를 반복하고, 이는 각 에피소드를 구성한다. 이처럼 반복되는 행동은 여성의 경직성과 방심을 보여주는데,¹⁷ 이는 '기계적인 것', '무감동', '생명 없음'으로 간주되며, 여성이 생명력이 없는 존재이자 기계나 사물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인물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된다.¹⁸ 따라서 여성의 경직성은 그녀가 과거에 매몰되어 눈앞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실패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게 만든다.¹⁹ 이렇듯 여성의 무지, 무능력으로 인한 실패, 동일한 실패의 반복은 괴담의 주인공이었던 여성을 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17 앙리 베르그송(1992), 정연복 역,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파주: 도서출판 세게사, pp. 17-26.

18 이영석(2006), 「베르그송의 『웃음, 희극성의 의미작용에 대한 시론』에 나타난 웃음과 희극성 분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7, 프랑스문화예술학회, pp. 244-250.

19 류종영(2005), p. 364.

그렇다면 <짤툰>과 <KF94>가 창출한 웃음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실패에서 유발되는 웃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자체를 풍자하며 이를 겪어 가는 사람들의 긴장감을 해소해 주었기 때문이다.²⁰ 이는 <짤툰>과 <KF94>의 창작 의도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짤툰>은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란에 영상 제작의 목적을 보여주는 한 문장을 고정해서 맨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시국에는 빨간마스크도 실직합니다.” 이는 8,500건의 좋아요를 받고, 198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뒤이어 달린 “과거: 공포의 대상, 현재: 모범시민”이라는 댓글이나 “2000년도 괴담: 마스크를 벗고 입을 찢는 여자가 있대!(까악), 2020년도 괴담: 마스크를 벗는 여자가 있대!(까악)”들도 각각 1천 회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위의 세 댓글은 모두 시청자가 느낀 즐거움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걸려 나와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중단되어 버린 상황,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억압과 긴장감은 <빨간 마스크>를 쓴 여성의 연이은 실패담을 통해 해소된다.

이는 <KF94>의 창작 의도와도 상통한다. 김민하 감독은 인터뷰²¹에서 “알미운 코로나의 그 동그란 ... 모양 그 뒤통수를 치고 싶은, 췌게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으며, “코로나라는 비극을 보고 나오시는 관객분들 앞에 작은 광대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요컨대 <빨간 마스크>에서 불가해한 대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이 여성이었다면, <짤툰>과 <KF94>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의 형태로 떠다니는 코로나19가 불가해한 대상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일으키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빨간 마스크>가 다시

20 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임인주 역,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서울: 열린책들, p. 267.

21 ‘코로나를 겪고 나온 관객들을 위한 작은 광대 같은 영화’(2022. 8. 7.), Jiff정동진독립영화제, https://www.youtube.com/watch?v=b_5dzPPWc_U&t=141s(접속일: 2024. 9. 15.).

소환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빨간 마스크>의 여성의 연이은 실패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웃음은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공격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귀신으로서 여성의 위력이 약화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이며, 팬데믹 상황이 주는 억압은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을 향한 웃음은 공격이나 풍자, 방어를 위한 ‘적의 있는 농담’²²에 해당한다. 적의 있는 농담은 흔히 권위 있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 선호되며, 이를 통해 권위에 대한 거부, 권위의 압력으로부터 해방을 보여준다.²³ <짤툰>과 <KF94>는 <빨간 마스크>에서 위계의 정점에 있던 여성을 격하시킴으로써 여성을 꾸준히 공격하고 비판하며, 이는 여성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빨간마스크>의 서사를 이미 알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에게 어린 시절 두려워하던 여성으로부터 느꼈던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는 반복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여성의 행위를 교정하고, 이를 보며 웃는 시청자들과 관객들의 행위도 교정하는 효과²⁴를 가져온다.

그러나 어린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상기시키던 여성에 대한 웃음, 반복되는 행동으로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실패를 거듭하는 여성에 대한 웃음의 이면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켜야만 하는 여러 억압에 대한 비판도 함께 담겨있다. 괴담 <빨간 마스크>의 서사를 고려해본다면, 여성의 반복적

22 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pp. 137-145. 프로이트는 농담을 놀이-익살-악의 없는 농담-경향성을 띠는 농담으로 구분하고, 경향성을 띠는 농담을 “공격이나 풍자, 방어를 위한 적의 있는 농담”과 “노출을 위한 외설적인 농담”으로 구분하였다. 프로이트가 이 책에서 지칭한 농담은 독일어로 Der Witz이다. 프로이트는 위트, 코믹 혹은 희극적인 것, 그리고 유머를 구분하여 다루지만, 그가 다루고 있는 위트는 넓은 의미에서 상당 부분 희극적인 것과 유사하다[류종영(2005), p. 339].

23 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p. 140.

24 앙리 베르그송(1992), p.158.

인 질문은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런데 <짤툰>과 <KF94>에서 보듯, <빨간 마스크>의 여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상황, 적절한 거리를 지키지 않고 말을 거는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모른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갑자기’ 당연한 행동이 되어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는 귀신이 그 위력마저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과연 <빨간 마스크>의 여성이 이상한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상한 것일까. 그렇다면 여성의 무지와 경직성으로부터 유발되는 웃음은 일차적으로는 여성의 행위에서 유발되는 웃음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규칙이 가진 경직성과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이자 통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지내왔던 일상이 가지는 소중함과 일상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바람도 함께 표현하는 셈이다. <짤툰>의 댓글에서 시국과 관련된 댓글들이 유독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짤툰>에서 야기되는 웃음이 결국 일상의 회복을 향한 바람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 시국에 대한 풍자라는 점에서 <짤툰>과 <KF94>에 형상화된 여성과 상대방의 불통이 주목된다. 괴담 <빨간 마스크>에서 여성의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상대를 규정하지 못했음을 노출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짤툰>의 에피소드 2는 ‘나 예쁘냐’는 질문 자체에 ‘미친 사람’이라고 반응하며 무시하는 남학생 1을 보여주며, 에피소드 3은 페이트 짱에게 너무 관심을 쏟은 나머지 ‘나 예쁘냐’는 질문을 자신을 향한 고백으로 오해하는 남학생 2를 보여준다. 그리고 <KF94>에서 여성은 ‘일본 귀신’으로 설정되어서, 여성을 마주한 사람들은 여성의 일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수행할 뿐이다.

그리고 여성이 마주한 학생들과 경찰, 간호사는 모두 무방비 상태가 아니다. 분명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맥락에서 여성을 각각 미친 사람, 고백하는 사람, 혹은 잠재적 범죄자, 신원 불상자,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로 규정한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였으나 마스크로 인해 얼굴이나 표정은 볼 수 없고,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일정한 거리 이상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에서, 맥락으로만 상대와 소통하다 보니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통의 결과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KF94>의 김민하 감독은 영화 촬영 3일 전에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나오는 대유행이 시작되자, 의심 증상이 나오면 바로 영화를 접는다는 마음으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한다.²⁵ 팬데믹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촬영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지휘하며 영화를 만드는 것은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면 바로 영화를 접는다는 표현은 제작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을 때 감당해야 할 실제적인 부담, 예를 들어 안전의 문제, 촬영의 무산이나 촬영 기간의 연장, 예산의 초과 등이 충분히 예측되기에 가능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분명 영화의 소재는 <빨간 마스크> 괴담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수많은 코로나 괴담을 양산하며 현실을 괴담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로 향유하던 <빨간 마스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자 초등학생을 포함한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영상이나 영화로 향유할 수 있는 서사로 바뀌었다. 전승의 계층은 과거 초등학생에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성인이 된 20-30대를 포함한 사람들로 더 넓어졌으며, 전승의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며, 전승의 방식도 친구들과 사이에서 괴담의 수정이 가능하던 구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고정된 각본을 일정한 시간 동안 보아야 하는 영상물로 모두 다 바뀌었다. <빨간 마스크>를 향유했던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고 코로

25 「[INTERVIEW] 빨간마스크 KF94-김민하감독」(2024. 7. 2.), 『인디그라운드』, <https://www.youtube.com/watch?v=X1XnHZa3O98>(접속일: 2024. 9. 28.).

나 팬데믹을 마주하였을 때, ‘빨간’, ‘마스크’가 지닌 강렬함과 특이함, 이 서사가 불러일으켰던 불안과 공포, 여성의 강렬한 캐릭터성 등이 <빨간 마스크>의 패러디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서사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짚툰>과 <KF94>가 보여주는 웃음과 웃음으로 인한 이중의 해소, 즉, 여성과 학생의 전도된 위상에서 오는 서사 차원의 긴장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일상에서 겪는 긴장감의 해소가 있었다.

도시 전설은 그 명칭이 괴담 혹은 도시 괴담과 혼용될 만큼²⁶ 황당하거나 섬뜩한 사건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공동체를 해체하고 만들어진 도시라는 공동체에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물보다는 나 혹은 나의 가까운 지인이 도시에서 경험한 ‘사실’을 잘 다듬어진 서사에 담아 황당함, 우스움, 섬뜩함과 같은 미감을 가지고 전달되어야 한다.²⁷ <빨간 마스크>가 새롭게 소환되어 <짚툰>과 <KF94>로 향유되는 것은 도시화와 세계화가 정점에 다다른 2020년에,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해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빨간 마스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괴담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한편으로 <빨간 마스크>가 새롭게 한국적 도시 전설로 향유되는 맥락으로 설명될 여지도 있다. 한국의 현대 도시 전설 중 하나인 <삼풍백화점 괴담>은 비현실적인 존재, 한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서사 구조, 죽음관 등에서 전통적인 이야기에 근접한 모습이 확인된다.²⁸ 이 특성들은 <짚툰>과 <KF94>에서도 확인된다. <빨간 마스크>에서 보여주는 외모와 행위의 피기스러움은 일본의 요괴 문화가 도시에서 새롭

26 염원희(2017), 「범죄담의 전승 상의 특징과 사회적 의미」, 『어문논총』 70집, 중앙어문학회, p. 228.

27 안 해럴드 브룬반드(2024), 박중서 역, 『도시전설의 모든 것』, 서울: 위즈덤하우스, pp. 24-25.

28 염원희(2016), 「사회적 참사 소재 도시전설의 유형과 의미」, 『한국민속학』 63집, 한국민속학회, p. 107.

게 재창조된 것이었다.²⁹ 그런데 <짤툰>과 <KF94>에서 여성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외모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을 해치는데 실패하고, 새로운 후일담을 통해 또 다른 정체성을 획득한다. 마치 도깨비가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씨름 내기를 하듯,³⁰ 여성은 사람들에게 계속 접근하고, 그들과의 대결에서 지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의 새로운 캐릭터성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짤툰>과 <KF94>의 향유는 마치 <삼풍백화점 괴담>의 향유가 일종의 ‘한을 푸는’ 방법이었던 것처럼³¹ 그 자체로 코로나 팬데믹의 긴장감을 함께 해소하는 놀이가 되었다. 괴담 <빨간 마스크>가 도시가 확산시킨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을 다하는 그 지점에서, <짤툰>과 <KF94>가 새롭게 탄생하였다.

5. 결론

본고는 대표적인 도시 전설인 <빨간 마스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변형되어 향유되는 사례로 유튜브에서 향유되는 <[짤툰 오리지널] 빨간마스크>와 단편 영화 <빨간 마스크 KF94>를 소개하고, 이 두 영상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배경으로 <빨간 마스크>를 어떻게 끌어와서 변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빨간 마스크>는 빨간색 마스크를 쓰고 밤에 길거리에 홀로 있는 아이들을 해치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주된 향유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

29 김정숙(2013), 「초등학생의 요괴·귀신관 형성 경로 탐색」, 『우리문화연구』 40집, 우리문화회, pp. 94-97.

30 김종대(2014), 「이야기와 민간신앙을 통한 도깨비의 삶 엿보기」, 『현대 일본의 요괴문화론』(박전열·임찬수 외), 제이앤씨, pp. 170-178.

31 엄원희(2016), p. 106.

안과 공포를 야기시키며 괴담으로 향유되었다. 반면 〈짚툰〉과 〈KF94〉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20-30대의 사람들에게 유튜브 영상과 단편 영화 형식의 코미디로 향유되었다. 전승층, 향유방식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서사의 주제와 미학도 바꾸었다. 〈짚툰〉과 〈KF94〉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다시 나타난 여성이 사람들과의 불통,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무지, 위력의 약화 등을 이유로 아이들을 해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 웃음은 과거 어렸을 때 두려워했던 대상이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는 해방감을 제공하며,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야기하는 답답함과 긴장감으로부터 일시적인 해소를 제공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의 경직성과 마스크로 인한 불통을 비판하며,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투영한다.

이와 같은 주제와 미학의 변화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결정적이었다. 일본의 요괴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괴담 〈빨간 마스크〉는 한국의 전통적인 이야기의 자장 안으로 흡수되면서 캐릭터, 서사의 구조, 이야기 향유의 기능 등이 새롭게 변용되었다. 이 논의는 뉴미디어 시대에 온라인 공간에서 전승되는 도시 전설이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 그러나 논의의 목적상 〈짚툰〉과 〈KF94〉에서 포착되는 주제 및 미학의 변화와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이와 같은 변화와 맞물려 있는 전승 주제와 전승 환경, 전승 방식의 변화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본고의 한계이다. 더불어 전승 환경 및 방식의 변화는 여성 캐릭터를 향한 폭력과도 일정부분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역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도 아쉽다.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김정숙(2013), 「초등학생의 요괴·귀신관 형성 경로 탐색」, 『우리문학연구』 40집, 우리문학회.
- 김종대(2005),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 김종대(2014), 「이야기와 민간신앙을 통한 도깨비의 삶 엿보기」, 『현대 일본의 요괴문화론』(박진열·임찬수 외), 제이앤씨.
- 김지영(2010), 「‘괴기’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개념과 소통』 5호, 한림과학원.
- 김지영(2019), 「괴기, 불균등한 근대예의 저항과 공포의 변증법」, 『우리문학연구』 64집, 우리문학회.
- 노성환(2007), 「바다를 건넌 일본의 요괴: 빨간 마스크의 도시괴담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6, 대한일어일문학회.
- 노성환(2020), 「홍콩할매귀신과 일본의 요괴」, 『일어일문학』 87, 대한일어일문학회.
- 류종영(2005), 『웃음의 미학』, 서울: 유로.
- 앙리 베르그송(1992), 정연복 역,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파주: 도서출판 세계사.
- 얀 해럴드 브룬반드(2024), 박중서 역, 『도시전설의 모든 것』, 서울: 위즈덤하우스.
- 염원희(2016), 「사회적 참사 소재 도시전설의 유형과 의미」, 『한국민속학』 63집, 한국민속학회.
- 염원희(2017), 「범죄담의 전승 상의 특징과 사회적 의미」, 『어문논총』 70집, 중앙어문학회.
- 이소윤(2018), 「뉴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도시괴담 장산범 연구」, 『구비문학연구』 48, 한국구비문학학회.
- 이영석(2006), 「베르그송의 『웃음, 희극성의 의미작용에 대한 시론』에 나타난 웃음과 희극성 분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7, 프랑스문화예술학회.
- 지그문트 바우만(2009),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 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임인주 역,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서울: 열린책들.
- 최원오(2008), 「구비전승의 현재와 미래」, 『한국문화인류학』 41(2), 한국문화인류학회.
- Brunvand, Jan Harold(1981), *The Vanishing Hitchhiker: American Urban Legends and Their Meaning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김민하(2022), ‘빨간마스크 KF94’, 정동진독립영화제 홈페이지, <http://jiff.kr/red-mask-kf94/>(접속일: 2024. 9. 1.).
- 짚툰(2020. 9. 27.), 「[짚툰 오리지널] 빨간마스크」, 짚툰, <https://www.youtube.com/>

- watch?v=HIMdnt4JhOw&t=32s(접속일: 2024. 8. 30).
- ‘코로나를 겪고 나온 관객들을 위한 작은 광대 같은 영화’(2022. 8. 7.), Jiff정동진독립영화제, https://www.youtube.com/watch?v=b_5dzPPWc_U&t=141s(접속일: 2024. 9. 15.).
- 「[INTERVIEW] 빨간마스크 KF94-김민하감독」(2024. 7. 2.), 『인디그라운드』, <https://www.youtube.com/watch?v=X1XnHZa3O98>(접속일: 2024. 9. 28.).

원고 접수일: 2024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2024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2일

ABSTRACT

From Grotesque to Goofy

Park, Seonghye*

The Case of Transmission of the
Urban Legend “Red Mask” and Its Meaning

This paper introduces a case in which the urban legend “Red Mask” was newly enjoyed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veals the meaning of this case. For discussion, “[Jal-Tun Original] Red Mask” and the short film “Red Mask KF94,” enjoyed on YouTube, were analyzed. “Red Mask” was perceived as a ghost story, causing anxiety and fea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a tale of a woman wearing a red mask and harming children alone on the street at night. On the other hand, “[Jal-Tun Original] Red Mask” and “Red Mask KF94” show that a woman who reappeared in the COVID-19 pandemic failed to communicate with people, was unaware of the COVID-19 pandemic, as well as the changing function of the mask, and her power as a ghost was weakened. As a result, the woman fails to harm the children, and this failure is repeated. In this process, laughter is triggered. This laughter provides a sense of freedom, indicating that the woman who was the object of fear in “Red Mask” is no longer a scary object.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temporary emotional release from the frustration and tens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se changes show that the ghost story “Red Mask,” which was formed based on Japanese

* Visiting Professor, Division of Writing and Communication, University of Seoul

monster culture, was absorbed into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Korean stories, transforming the character, narrative structure, and the enjoyment of the story. It is also timely in that it reveals how urban legends change in conjunction with the experi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era of new media.

Keywords Urban Legends, Ghost Stories, Virus, COVID-19, COVID-19 Pandemic, Grotesque, Laughter, Popular Narratives, YouTube, Movies